

# 도교육청, 2차 추경 3조5607억 편성

### 1039억원 감액 도의회 제출... 가을철 코로나19 대유행 대비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가을철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방역에 더욱 철저를 기해 편성했습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해 유래없는 감액 추경안을 편성했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액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지원 수입 -970억 원(보통교부금 -1,088억 원, 특별교부금 17억 원, 증액교부금 -5억 원, 국고보조금 106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등 -94억 원, ▲자

체수입 25억 원 등 기정예산 3조 6,646억 원 대비 총 1,039억 원(-2.8%) 줄어든 3조 5,607억 원 규모다.

추경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에 따라 ▲정규직 및 계약제교원, 교육공무직 원 인건비 감소분 반영 ▲교육사업 및 학교 신설 등 기존 사업 조정분 반영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교통안전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본예산 편성 후 추가 발생된 재정수요 등을 반영했다.

특히 정부의 보통교부금 감액을 고려한 세출 예산 구조조정을 위해 사업별 집행 잔액 예상액을 면밀히 분석해 ▲교직원 인건비 등 -232억 원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 각종 체육대회

및 교직원 연수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집행된 교육사업 -445억 원 ▲여건 변화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학교신설 사업비 등 -203억 원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 낙찰차액 등 -140억 원,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274억 원 등 총 1,294억 원을 감액했다.

도교육청은 감액 추경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운영 한시적 지원비와 일반고교 기숙사 사감 인건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 ▲학교현장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보호 방역활동 인력 및 단기인력 급식보조 인건비 지원 원격교육 활성화 지원비

반영 ▲학교 안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비를 추가 편성하는 등 학생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사업에 82억 원을 마련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원격 수업 병행에 따라 올해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추진하려던 초·중·고 및 특수학교 일반교실의 무선환경 구축 연내 완료를 위해 131억 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원활한 원격 수업을 위해 내용연수가 경과한 교원용 노트북 PC를 교체하는데도 24억 원을 지원하는 등 총 255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한편 이번 제출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9월 3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제375회 도의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장은성 기자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45회 KBS배 전국 레슬링 대회'에서 전북체육중·고등학교가 금메달 6, 은메달 3, 동메달 3개 등 총 1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 전북체육중·고 레슬링 전국 제패

### KBS배 전국 레슬링 대회서 총 12개 메달 획득

전북체육중·고등학교 레슬링 선수들이 전국을 제패했다.

26일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45회 KBS배 전국 레슬링 대회'에서 전북체육중·고등학교가 금메달 6, 은메달 3, 동메달 3개 등 총 12개의 메달을 획득하면서 전국 최강임을 증명했다. 남중부 자유형 51kg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이재우는 그레코로만형 51kg에서도 값진 은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전북체고 레슬링 선수들의 활약은 더욱 눈부셨다. 전북체고는 그레코로만형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남고부에 출전한 한오성은 자유형 61kg급에서 1위에 올랐고 소원과 김경태 정성연은 각각 그레코로만형 63kg급과 67kg급, 82kg급 정상에 차지했다. 여고부 문다은도 자유형 50kg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밖에도 정승태와 김보경(여)은 각각 자유형 88kg급과 55kg급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문해민과 이주원, 김도현도 값진 동메달을 차지했다.

이같은 활약으로 전북체고는 최우수 선수상(소원과 최우수 지도자(김신규))을 받았고 이준진 감독의 지도력도 높이 평가받았다.

/장은성 기자



군산대학교 새만금중소기업진흥원(이하 새중원)과 (사)국가품질명장협회전북지회가 군산대학교 새만금캠퍼스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군산대 새중원·국가품질명장협회 전북지회 '맞손'

### 현장 맞춤형 인력지원 등 협약

군산대학교 새만금중소기업진흥원(이하 새중원)과 (사)국가품질명장협회전북지회가 군산대학교 새만금캠퍼스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협약은 상호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전략적 업무제휴를 위한 것으로, 협약 결과 양 기관은 ▲중소기업 기술 애로 개선에 필요한 생산 품질, 안전 관리 등 제반 컨설팅 분야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생 및

기업 재직자 교육훈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동반자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 노력하게 된다.

새중원은 지난해 3월에 발족해 군산 지역 1,750여 개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 중 가장 시급한 것이 현장 애로사항 및 현장 맞춤형 우수인력의 필요성으로 나타났다.

이번 협약은 그 해결책 중 하나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다.

(사)국가품질명장협회 전북지회장 안호병 명장은 "명장협회는 지난 29년 동안 1,504명의 국가품질명장을 양성했고, 산업현장에서 품질과 기술 전도 사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해왔다"며, "특히, 선진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있어 기술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협약 이후 이러한 고급 기술들도 현장에 맞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군산=한영봉 기자

새중원 설립오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군산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현장 맞춤형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과 기업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지원하겠다"면서 "이러한 활동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사)국가품질명장협회는 1991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대통령 19015호로 (사)국가품질명장협회 회원들을 '대한민국 국가품질명장'으로 지정했고, 2017년 6월 산업표준화법으로 개정, 대통령령 '국가품질명장'으로 법제화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교대-교육지원청 '교육발전 방안 모색' 협약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는 전주교육지원청과 26일 본부동 2층 회의실에서 도내 교육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 김우영 총장, 채동현 대학원장, 장용우 교무처장, 최병연 기획처장, 이석구 총무처장, 천호성 산학협력담당, 은혁기 초등교육연구원장, 하영민 교육장, 최창암 행정지원국장, 박수진 재정협력과장, 조경애 초등교육과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전주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 시설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하영민 교육장은 "오늘 양기관이 협약을 맺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주교육의 발전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우영 총장은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 다변화되는 사회적 요구에 전주교육지원청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도내 교육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육·문화·예술사업 등에 대해 협력해 나가자"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익산, 신규 교육행정공무원, 기록물 관리 연수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수경)은 25일 신규 교육행정직 공무원과 담당공무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록물 관리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최근 신청서를 개청한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환근)에서 기록관실 견학과 함께 진행됐다.

강사로 초빙된 김문석 기록연구사는 신규 공무원들을 위한 공문서 작성 기본과 학교 현장의 올바른 기록물 관리 방법을 사례 위주로 설명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